

주요 내용

1. [고교 기독동아리 실태]

고교 기독동아리 학생의 7%,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 믿게 됐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1) OECD 사회적 고립도

2) 직장 갑질 관련 직장인조사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고교 기독교 동아리 학생의 7%,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 믿게 됐다’!

목회자들에게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라 하면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드는 것이 ‘다음세대’ 문제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의 절대적 수가 줄어들고, 교회학교 학생 수는 그보다 1.3배 더 빨리 감소하여 10년 후에는 30%, 20년 후에는 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감소율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한국교회 다음세대. 이렇듯 다음세대 감소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다음세대 확장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교내 기독교 동아리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기독교 동아리에 대한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학원선교단체 ‘더작은재단’(대표 오승환)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독교 동아리가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봄으로써 기독교 동아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집중시키고, 궁극적으로 다음세대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조사 프로젝트이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동아리 활동 학생 중 7%가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됐다’고 응답했는데, 평균 동아리원 수가 15.9명인 것에 대입해보면 기독교 동아리 한 곳에서 한 명은 새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다음세대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숫자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165호>에서는 본 조사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다음세대 확장을 위해서는 다음세대가 있는 곳으로 교회가 찾아가야 한다. 한국교회가 학교 내 교회라 할 수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연계 및 지원을 통해 다음세대 확장과 성장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해본다.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10p.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기독동아리 실태 조사

본 조사는 한국교회의 큰 고민 중 하나인 ‘다음세대’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학교 안 신앙 생활의 통로이자 지표인 ‘기독 동아리’ 운영 실태 및 영향도 등을 조사·파악하여 교내 신앙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코자 진행되었다.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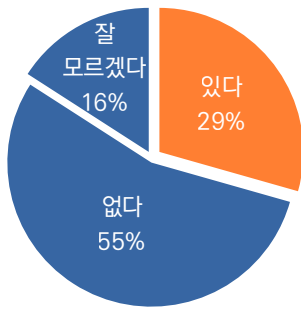
구 분	교사 대상 조사	학생 대상 조사
• 조사 대상	전국 고등학교 교사	전국 기독동아리 활동 중인 고등학생
• 조사 방법	리스트(좋은교사운동 소속교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	리스트(좋은교사운동 소속교사의 소개 학생)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 및 스노우볼링을 통한 모바일 조사
• 표본 규모	총 320명 (유효 표본)	총 126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7월 1일 ~ 7월 20일	
• 조사 의뢰 기관	(재)더작은재단	
• 조사 협력 기관	(사)좋은교사운동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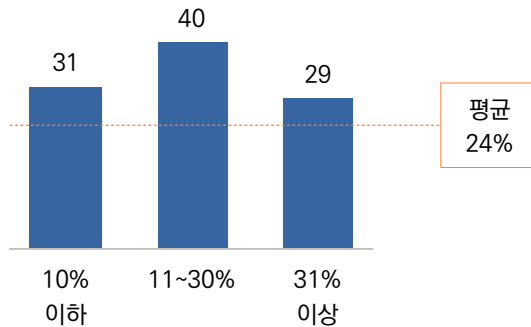
전국 고등학교 4곳 중 1곳, '기독동아리' 있을 것으로 예상!

- ▶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기독동아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29%가 '있다'고 응답했다. 본인의 근무 학교 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독동아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은 지에 대한 질문에는 약 24%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국 고등학교 4곳 중 1곳 정도에 기독동아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4곳 중 3곳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신앙 친구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현 근무 학교 기독동아리 유무 (교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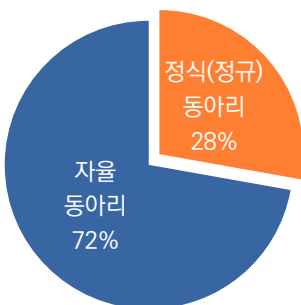
[그림] 전국 고등학교의 기독동아리 비율 예상 (교사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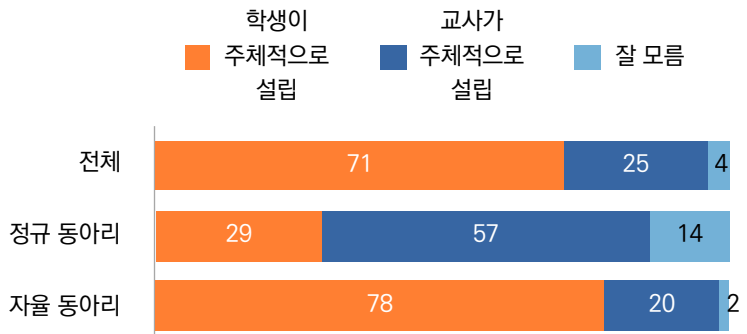
◎ 기독동아리 10곳 중 7곳(71%), '학생이 주체'가 되어 만들었다!

- ▶ 현재 기독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형태를 물은 결과, 72%가 '자율 동아리'라고 응답했다. 즉, 다수의 기독동아리는 정규 교육과정에 속해 있기보다는 수업 시간 외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특히 '자율 동아리'(78%)가 '정규 동아리'(29%)에 비해 '학생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비율이 2.7배 가량 월등히 높았다. 교내에서 신앙생활을 갈망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 동아리를 설립해 신앙 활동을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활동하고 있는 기독동아리 형태 (학생 대상)



[그림] 기독동아리 설립 주체 (재학 중 기독동아리 설립된 학생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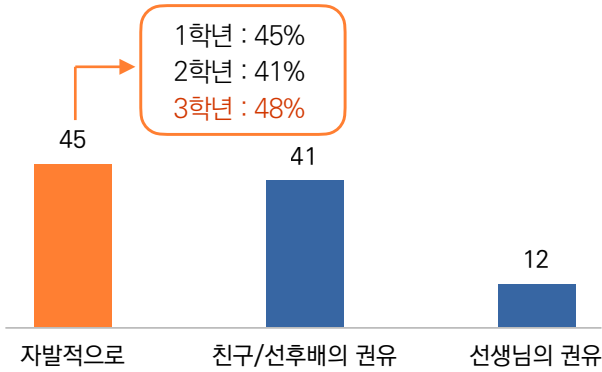
*정식(정규) 동아리 : 학교 수업 시간 내에 편성된 동아리.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
자율 동아리 : 수업 시간 외에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학교계획에 의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동아리.

02

기독동아리 학생의 절반 가량(45%),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 시작!

- ▶ 기독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의 절반 가까이는 '자발적으로'(45%)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선후배의 권유' 41%, '선생님의 권유' 12% 순으로 응답했다.
- ▶ 특히, '자발적으로' 기독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비율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가장 높은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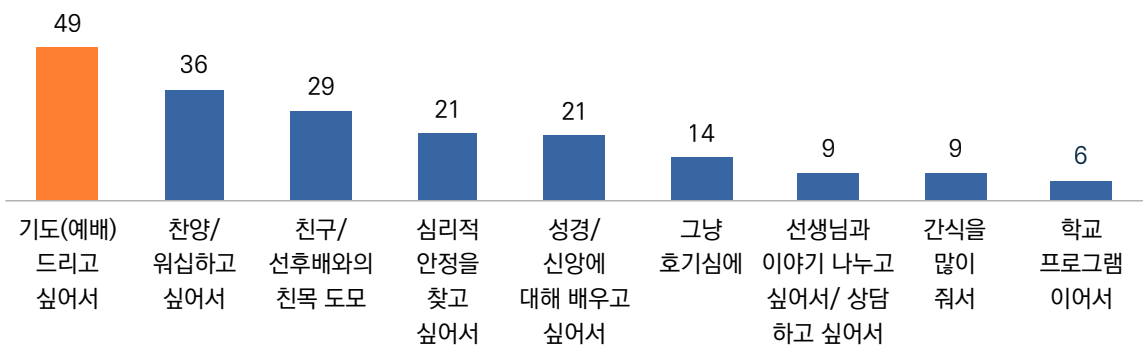
[그림] 동아리 활동 계기 (학생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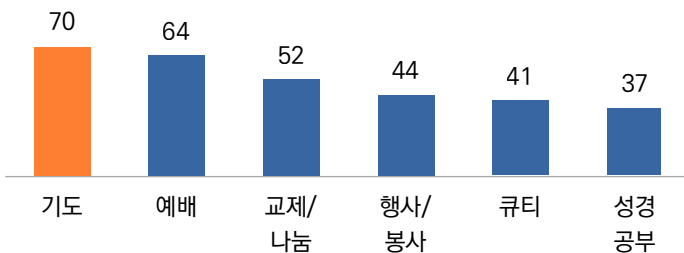
◎ 기독동아리 활동 이유, '기도'와 '예배'에 대한 갈급함(49%)이 가장 커!

- ▶ 학생들이 기독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유는 '기도(예배) 드리고 싶어서'가 49%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찬양/위십하고 싶어서' 36%, '친구/선후배와의 친목 도모' 29%, '심리적 안정'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목'이나 '심리적 이유'보다 '신앙'이 주된 이유로 나타난 것이 주목된다.
- ▶ 실제로 기독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도 '기도'(70%)와 '예배'(64%)가 주가 되고 있었다.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기도·예배 등 영적 생활에 대한 니즈를 크게 느끼고 있으며, 기독동아리가 그 니즈를 해결해주는 창구가 되고 있다.

[그림] 기독동아리 참여 이유 (학생 대상, 1+2순위, %)



[그림] 기독동아리에서 하는 활동 (학생 대상,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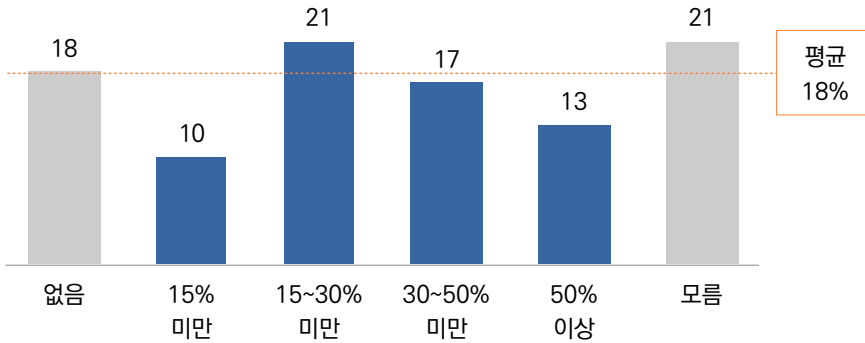


03

기독동아리 소속 학생의 18%,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 ▶ 기독동아리 학생 구성을 살펴보면, 동아리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약 18%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학생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 ▶ 기독동아리가 기독교 학생만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다수의 기독동아리가 교회에 미출석하는 가나안 학생 혹은 심리적 안정, 호기심 등의 이유를 가지고 동아리에 참여하는 비기독교인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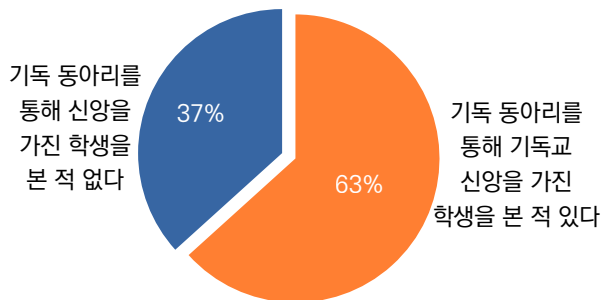
[그림] 교회 안나가는 동아리원 비율 (학생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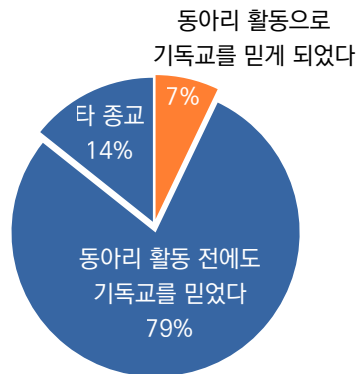
◎ 학생 7%, '기독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 ▶ 기독동아리 담당 경험이 있는 교사 중 63%는 '기독동아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을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독동아리 학생의 종교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동아리 활동 전부터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된' 학생도 7%에 달했다.
- ▶ 다음세대의 교회 이탈이 증가하고, 다음세대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7%는 적지 않은 숫자로, 기독동아리 활동이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기독동아리를 통해 신앙 가진 학생 경험률 (현 기독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그림] 기독동아리 활동 학생 종교 (학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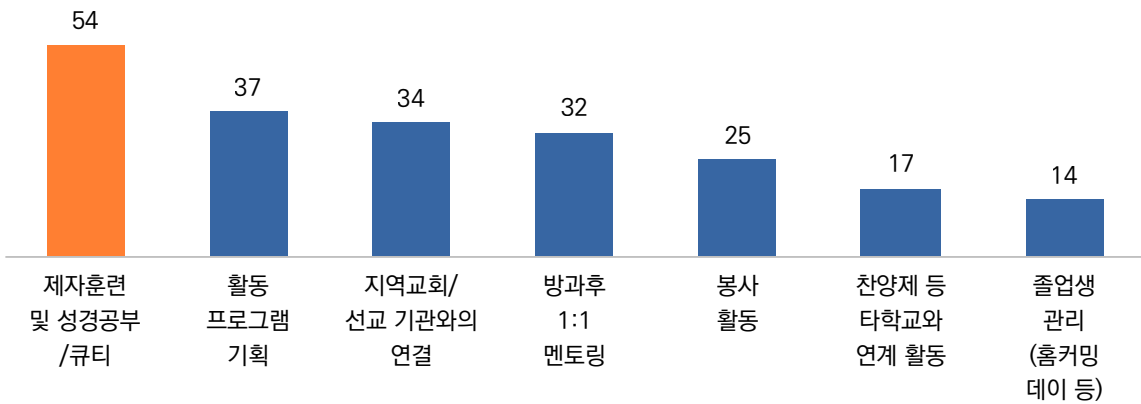


04

기독교동아리 담당 교사, 동아리 활성화 위해 '제자훈련 및 성경공부'(54%) 했다!

- ▶ 현재 기독교동아리를 담당하거나 과거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대상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물었는데 54%가 '제자훈련 및 성경공부/큐티'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활동 프로그램 기획'(37%), '지역교회/선교 기관과 연결'(34%), '방과후 1:1 멘토링'(32%)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대부분의 기독교동아리 담당 교사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했음을 보여준다.
- ▶ 45세 이상 교사는 '제자훈련 및 성경공부/큐티', '활동 프로그램 기획', '지역교회/선교 기관과의 연결' 등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반면, 35세 미만 교사는 '방과후 1:1 멘토링'과 '봉사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45세 이상 교사는 '신앙 연계 활동'에, 35세 미만 교사는 '신앙 활동 외 학생과의 관계 등'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현 기독교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중복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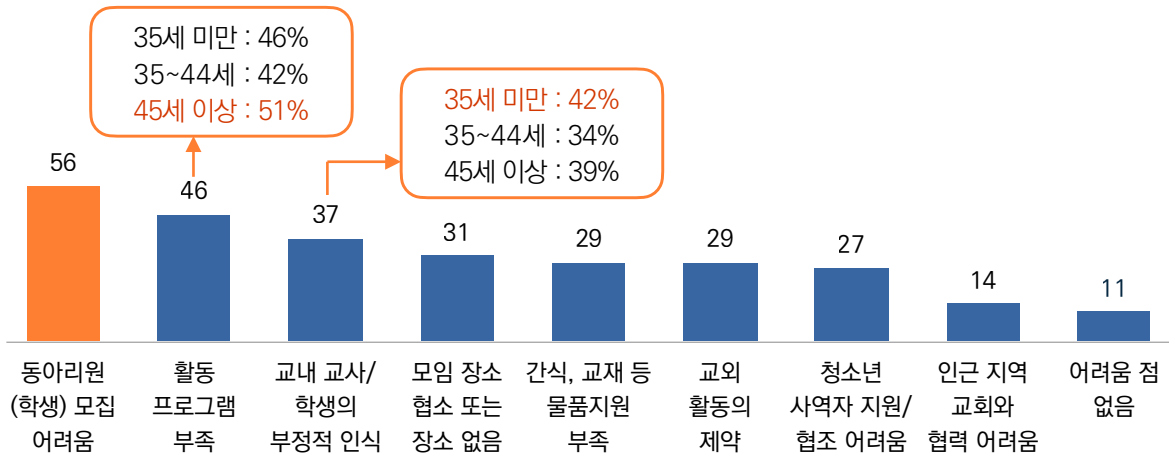
[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현 기독교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연령별, 중복응답, 상위 7위, %)

연령	제자훈련 및 성경공부/큐티	활동 프로그램 기획	지역교회/선교 기관과의 연결	방과후 1:1 멘토링	봉사활동	찬양제 등 타학교와 연계 활동	졸업생 관리 (홈커밍 데이 등)
35세 미만	46	31	27	50	31	8	4
35~44세	53	36	34	31	24	19	18
45세 이상	59	41	37	24	22	20	16

◎ 기독동아리 담당 지도의 가장 어려운 점, 절반 이상(56%) '동아리원 모집'을 꼽아

- ▶ 동아리 담당 지도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동아리원 모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56%). 그 다음으로는 '활동 프로그램 부족', '교내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동아리원이나 프로그램 등 내부 요인 외에 '부정적 인식'이라는 외부 요인이 어려운 점 상위에 있어 주목된다.
- ▶ 연령이 높을수록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꼽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내의 부정적 인식'을 많이 꼽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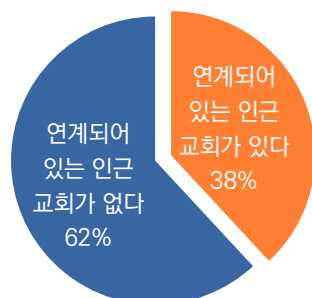
[그림] 기독동아리 담당 지도의 어려운 점 (현 기독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1~3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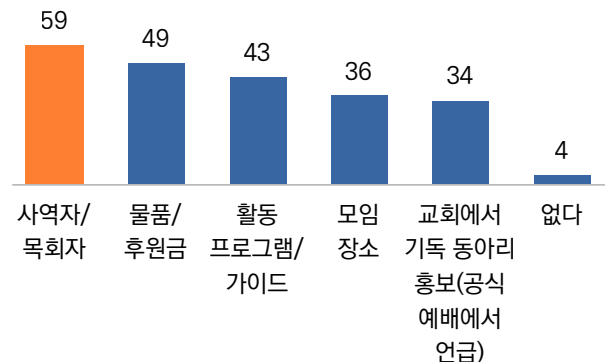
05 기독동아리 10곳 중 4곳만, 지역교회와 연계되어 있다!

- ▶ 기독동아리 중 지역사회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비율은 38%로, 10곳 중 4곳 정도만이 연계 교회가 있었다. 연계 교회에서 지원받는 항목은 '사역자/목회자' 지원 59%, '물품/후원금' 49%, '활동 프로그램/가이드' 43%, '모임 장소' 36%, '기독 동아리 홍보' 34% 등이었다.
- ▶ 앞서 교사들이 기독 동아리 운영에 있어 '학생 모집'과 '활동 프로그램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는데, 지역사회 교회에서 공식 예배를 통해 동아리를 언급하고 홍보하는 것이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활동 프로그램이나 가이드 지원도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요소를 보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사회 교회와 교내 기독 동아리가 연계되는 비율이 더 늘어난다면 기독 동아리 운영의 애로사항을 줄이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교회 차원에서도 가나안 학생을 교회로 유인하는 등 청소년부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지역사회 연계 교회 유무 (현 기독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그림] 연계 교회의 지원 항목 (현 기독동아리 담당 or 과거 담당 경험 교사 대상,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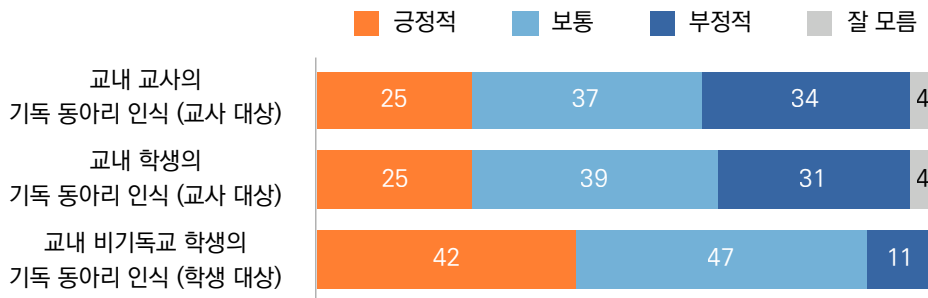


06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시선, 학생보다 교사가 더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내 교사/학생의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긍정적' 예상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이 생각하는 '교내 비기독교 학생의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42%, '보통' 47%, '부정적' 11%로 긍정적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즉, 학생보다 교사가 교내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시선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 비해 교내 시선에 대해 더 민감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시선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교사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기독교동아리에 대한 인식'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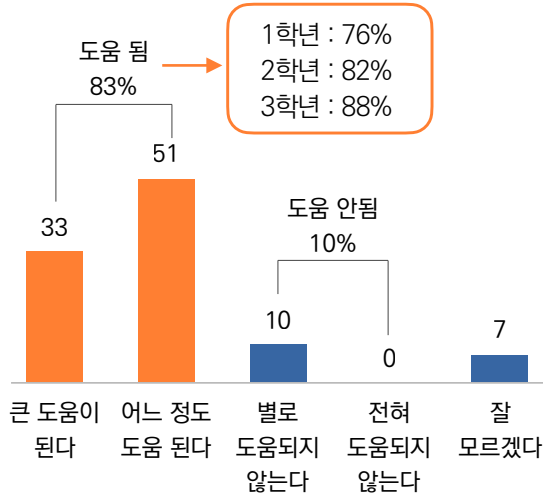
*5점 척도 문항으로 '긍정적(매우+약간)', '부정적(매우+약간)' 비율임.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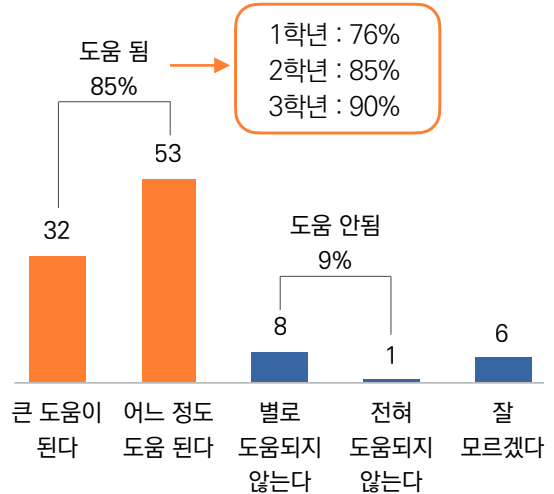
기독교동아리 활동, 신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도움 된다!

- 기독교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기독교동아리 활동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신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비율 역시 85%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신앙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고3 학생들이 기독교동아리의 도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유의미하다.

[그림] 기독교동아리 활동의 신앙 성장 도움 정도 (학생 대상, %)



[그림] 기독교동아리 활동의 일상생활 도움 정도 (학생 대상, %)



시사점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무엇일까? 전인교육?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일부 소수의 학생 및 학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교육은 대학 입시를 목표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활동도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에 집중하도록 계획을 짜서 실행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에서 배우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동아리 본래의 목적이지만, 대학 입시라는 목표 앞에서는 동아리 활동도 예외없이 학생들의 입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른바 ‘스펙’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동아리를 선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학생의 ‘스펙’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동아리를 운영한다. 기독교 동아리는 학생의 스펙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교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고등학교 4곳 가운데 1곳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는 절대적 수치로 보면 미흡하지만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 체제에서 보면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4쪽)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는 것보다 더 주목할 것은 기독교 동아리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독교 동아리 4군데 가운데 3군데가 자율 동아리이며, 교사 주도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4쪽) 학생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이유는 ‘기도(예배) 드리고 싶어서’ 49%, ‘찬양/위십하고 싶어서’ 36%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일 외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다.(5쪽)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을 갖지 않은,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굳건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결과이다. 어른들이 보기에 다음세대는 어린 것 같지만 복음은 이미 그들 속에서 살아 움

는 어린 것 같지만 복음은 이미 그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가운데 18%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경위가 어떠한지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므로 신앙 유지 및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동아리의 긍정적 역할을 볼 수 있다. 또한 7%는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되었으며 14%는 타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6쪽) 이 둘을 합한 21%는 기독교 동아리를 통한 선교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학에는 CCC 등 여러 대학생 선교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는 선교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인 기독교 동아리가 선교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통한 고등학생 전도를 보완할 수 있는 통로로 기독교 동아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기독교 동아리 가운데 인근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38%, 연계된 교회가 없는 경우가 62%로 많은 동아리가 지역 교회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인근 교회와 연계된 기독교 동아리를 보면 교회로부터 목회자 지원(59%), 물품/후원금 지원(49%), 활동 프로그램 지원(43%), 모임 장소 지원(36%)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9쪽) 인근 교회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 동아리에게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이들이 힘을 얻어 기독교 동아리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교회와 연계된 비율이 38%에 그치고 있어, 교회가 고교 기독교 동아리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기를 권고한다. 교회는 인근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지 파악하여 이들을 지원하거나, 교회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도록 권유할 수 있다. 지역 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적 노력이 개 교회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차원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1) 교회학교와 관련해서 넘버즈 55호, 95호, 96호, 101호, 102호, 143호 참조할 것

1.[OECD 사회적 고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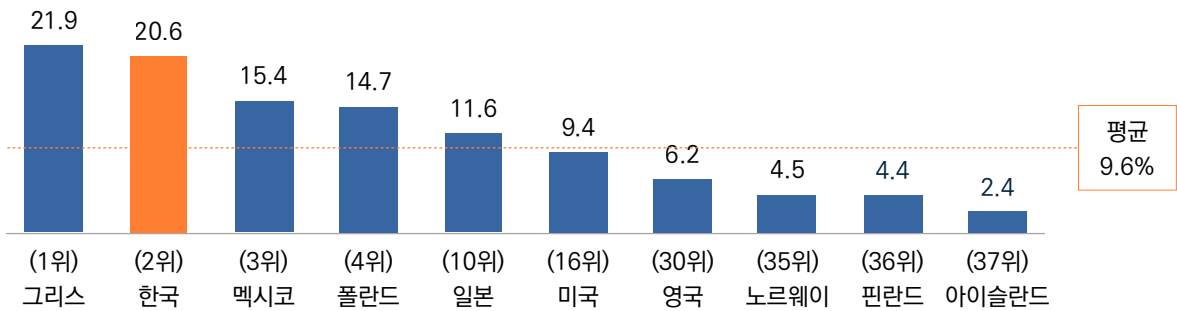
2.[직장 갑질 관련 직장인조사]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 OECD 주요 37개국 중 최상위권!

- ▶ OECD의 「How's Life? 2020 리포트」에 따르면 2016~2018년 OECD 평균 '사회적 고립도' 즉,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1명(9.6%)인 것으로 조사됐다.
- ▶ 이를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OECD 주요 37개국 중 그리스 21.9%(1위)에 이어 20.6%로 최상위권인 2위에 랭크됐다. 반면 사회적 고립도가 낮은 국가로는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로 나타났다.

[그림]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 (2016~2018 평균, 주요국, %)



*자료 출처 : 노컷뉴스, '빈곤이 낳은 '외로운 죽음'...취약계층에 왜 늘어갈까' 기사 참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831349>)

**원자료 출처 :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0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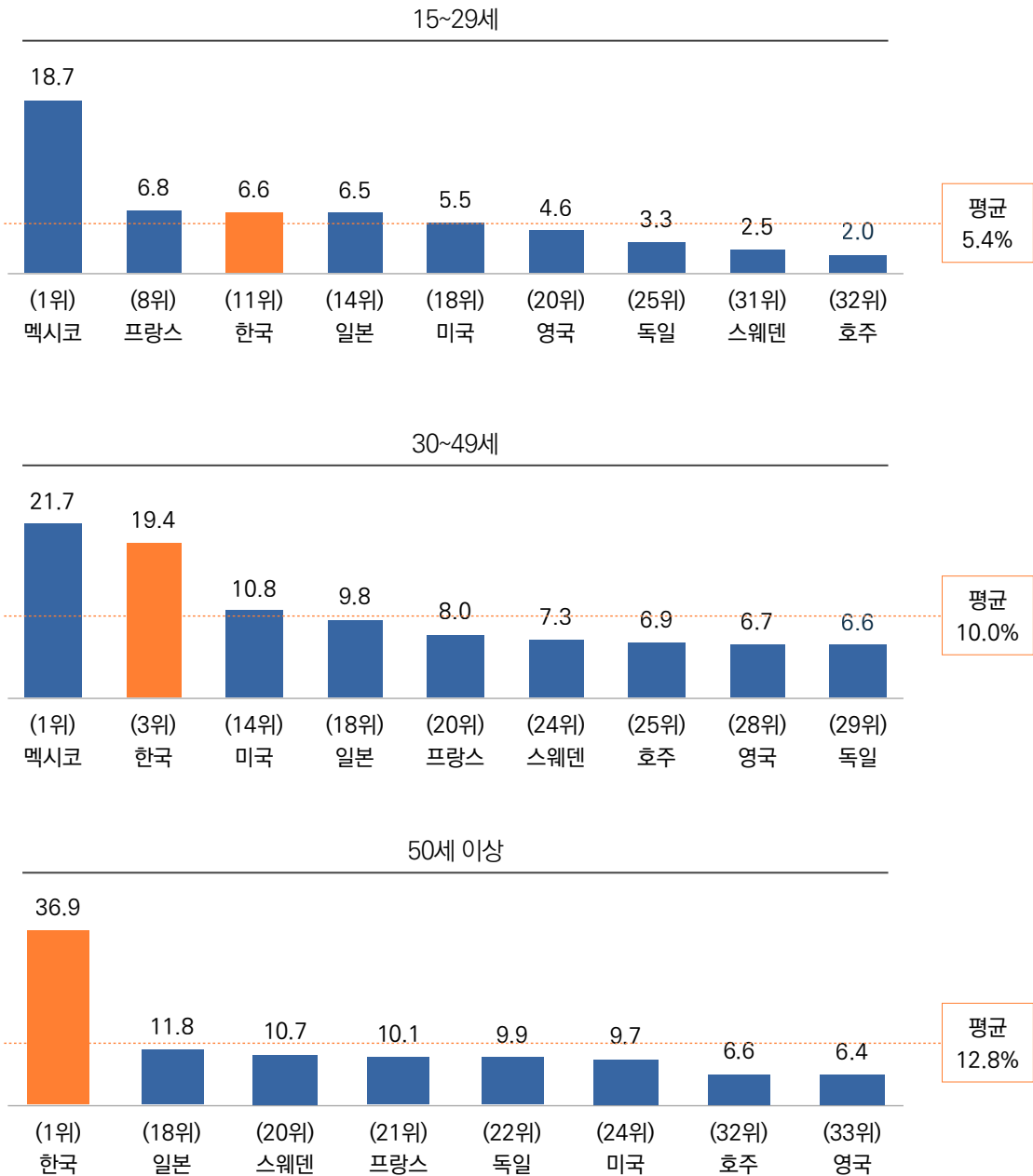
(Gallup World Poll (database),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Note. 통계청의 '국가지표체계' 사회적 고립도 지표(통계표: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도'(국제 비교)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을 명시함.(다음의 링크화면 하단의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참조)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2>)

◎ 한국인, 50세 이상 사회적 고립도 OECD 1위!

- ▶ 이번에는 OECD 국가의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를 살펴보았다.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의 OECD 평균을 보면 '15~29세' 5.4%, '30~49세' 10.0%, '50세 이상' 12.8%로 전체적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 한국은 '15~29세'에서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30~49세'와 '50세 이상'에서는 각각 OECD 평균 대비 각각 2배, 3배 가량이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OECD 37개국 중 한국이 36.9%로 사회적 고립도 1위를 기록했다.

[그림] OECD 주요국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주요국, %)



*자료 출처 : 노컷뉴스, '빈곤이 낳은 '외로운 죽음'...취약계층에 왜 늘어갈까' 기사 참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831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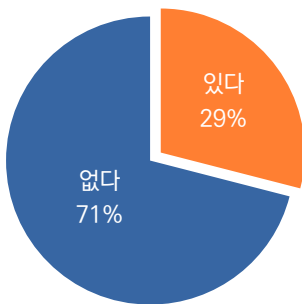
**원자료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프리즘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수(조규준)' 참조, 월간 노동리뷰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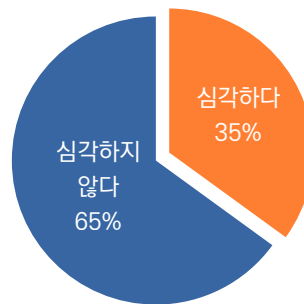
직장인,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29%!

- ▶ 직장갑질119에서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다.
- ▶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묻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꼴(29%)로 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 중 35%는 괴롭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



[그림]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수준** (괴롭힘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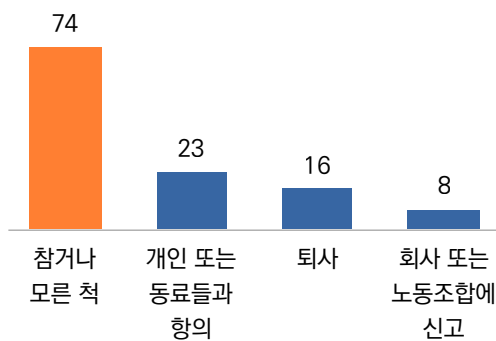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2022-3분기 설문 결과, 2022.10.09.(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9.02.-09.08)
 **4점 척도질문으로 심각하다(매우+심각한 편), 심각하지 않다(전혀+심각하지 않은 편)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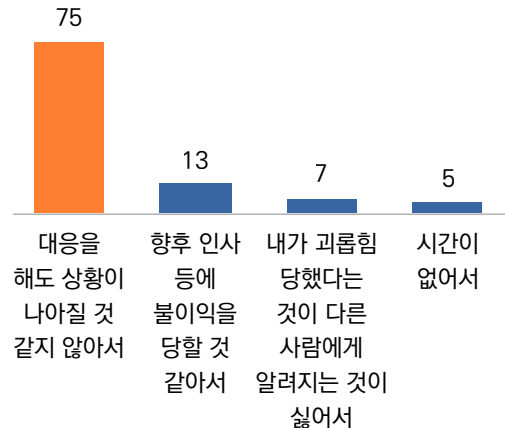
◎ 직장인의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 당할 때, ‘신고’보다 ‘참거나 퇴사’한다!

- ▶ 직장인들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직장인 4명 중 3명인 74%가 ‘참거나 모른 척’하고 있었고, 16%는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 대부분이 ‘참거나 퇴사’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법을 택하는 것이다. 반면,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 ▶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75%로 가장 많았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13% 등의 순이었다.

[그림]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법 (괴롭힘 경험자, 중복응답, 상위 4위, %)



[그림] 신고하지 않은 이유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 상위 4위, %)



*자료 출처 :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2022-3분기 설문 결과, 2022.10.09.(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9.02.-09.0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16호\(2022년 10월 3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경제, 부동산 집값 전망, 카카오 관련 서비스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82호\(2022년 10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긍정/부정평가 이유,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등

◎ 사회 일반

[2050년 10집 중 4집 1인가구...부부만 같이 사는 집도 23.3%](#)

연합뉴스_2022.10.20.

[코로나 확진돼본 사람일수록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원해](#)

연합뉴스_2022.09.29.

["더이상 이득 없어" vs "유행 안 끝나"... '실내마스크 해제' 두고 의료계 의견 분분](#)

조선비즈_2022.10.17.

[늘어나는 여성 마약 중독자... 마약 회복정책에 젠더 관점을](#)

여성신문_2022.10.20.

[그들은 왜 취하는가...韓은 '마약과 전쟁'](#)

노컷뉴스_2022.10.24.

[대중문화예술인 대체 군복무 허용, 여론은?](#)

한국리서치(여론 속의 여론)_2022.10.18.

[정부-기관-판매자가 손잡고 건전한 복권문화 만들어갑니다](#)

동아일보_2022.10.20.

◎ 청소년 / MZ세대

["딱 받은 만큼만 일한다"...2030 직장인 대세 된 '조용한 사직'](#)

한국경제_2022.10.20.

[첫 취업에 3년 넘게 걸린 청년 36만명...3년이상 니트족 8.4만명](#)

연합뉴스_2022.10.19.

[청소년은 어떻게 담배를 구할까...비밀은 '뿔값·뿔구·앵바리'](#)

연합뉴스_2022.10.20.

[미국 MZ 세대 "열일 안 해" 선언...팬데믹이 바꾼 직장관](#)

한겨레_2022.10.25.

◎ 건강

['하루 1만보' 금상첨화지만...3800보만 걸어도 치매위험 25% 뚝](#)

매일경제_2022.10.17.

[50세 이후 하루 5시간도 못 자면...복합만성질환 위험 ↑](#)

동아일보_2022.10.20.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있는 병실 쓰면…환자 수술 예후에 도움된다](#)

동아일보_2022.10.18.

◎ 기업 / 경제

[근로자 4명 중 1명 여전히 月 200만원도 못 번다](#)

국민일보_2022.10.19.

[귀사의 남녀 임금 격차를 소개합니다](#)

시사IN_2022.10.24.

[중소 75% “8시간 추가연장근로 종료되면 대책 없어”](#)

조선일보_2022.10.20.

[갈 길 먼 직장 조직문화 개선…"원할 때 휴가 못써"](#)

연합뉴스_2022.10.23.

◎ 국제

[\[주변국 호감도\] 일본 호감도, 무역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

한국리서치(여론 속의 여론)_2022.10.18.

["중국 젊은이 55%, 서방 낮춰 본다…6년 만에 3배로 늘어"](#)

연합뉴스_2022.10.21.

◎ 기독교 / 종교

[코로나로 달렸던 ‘여름 사역’ 80% 이상 열렸다](#)

더미션(국민일보)_2022.10.24.

[홀로 된 사모의 눈물…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월 152만원 손에 쥐어](#)

더미션(국민일보)_2022.10.21.

◎ 칼럼

[20대 사망원인 57%는 극단선택, 고독사는 9년새 3.4배 늘어](#)

중앙일보_2022.10.18.

◎ 기획기사 : 창간34주년/대학생 의식 조사, (한국대학신문)

[1. 대학생들 중요한 사회 가치는 ‘돈’…지난해 이어 ‘공정성’ 또 다시 도마 위](#) _2022.10.22.

[2.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로 불거진 우리 사회 ‘공정성’](#) _2022.10.22.

[3. ‘취업’ 위해 대학 진학한다…등록금 인상 여론은 여전히 ‘싸늘’](#) _2022.10.22.

[4. 직업 선택의 조건은 5년 연속 ‘급여’ 1위…재테크는 은행 예적금으로 안정성 추구](#) _2022.10.22.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홍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운, 박세웅, 박영철, 박영호,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오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할,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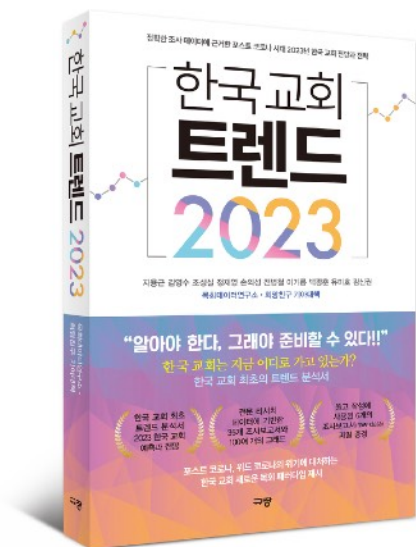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솔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해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 연구소 소식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지난 9월 15일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간된지 1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종교부분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